우암학원 창학70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MASERATI
Quattroporte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88호 1판 (음력 1월 12일) 2020년 2월 5일 수요일

광주도 뚫렸다… 16번 확진자·가족 동선 따라 흐르는 '불안'

신종 코로나 확진에 다중이용시설 기피 … 공포 확산
관련 병원·학교·유치원 뒤숭숭' … SNS에 가짜뉴스도

관련기사 2·3·4·5·6·10·14면

광주·전남 전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패닉에 빠졌다.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다중집합장소를 꺼리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광주·전남 전역을 뒤덮고 있다.

특히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병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검역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민의 공포감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4일 찾은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광주21세기병원 앞에는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 가족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이 병원은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A(여·42)씨가 첫 치료를 받은 곳이다.

광주21세기병원은 확진자 가족 외에도 80여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오전 중 방역을 실시한 뒤 외부 출입문을 모두 걸어 잠근 모습이었다.

병원 앞에서 만난 이모(73)씨는 병원 폐쇄로 인해 전날 손가락 치료를 위해 입원한 아내 김모(65)씨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 밖에서 몇 시간 째 휴대폰으로 아내와 통화를 하던 이씨는 아내가 5층 병실 창문을 열고 손을 내저으며 집으로 가라고 재촉했지만, 한참을 병원 앞에 머물렀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다른 환자 가족들도 폐쇄된 병원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다.

A씨의 아들(7세)이 다니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어린이집도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광산구는 이날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을 귀가조치하고 17일까지 임시휴원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매일 등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손세정을 시키고 발열체크를 해왔다"며 "아직까지 이상증세가 나타난 원생은 없다"고 말했다.

확진자의 또 다른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는 지난달 31일 졸업식을 개최했는데, 당시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이 열렸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병원도 뒤숭숭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마다 신종 코로나 유의사항이 붙어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방역 마스크를 쓴 입원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고가고 있었다.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에서 만난 김모(62)씨는 "확진자가 여기 있다는 얘길 듣긴 했지만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확진자 발생 소식에 평온했던 지역민의 일상도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과 SNS 상에는 '확진자가 보름 이상 광산구 대형마트·시네마·터미널 등을 돌며 1300명 이상 만났고, 함께 여행한 동료들이 서구와 남구에 거주해 이들 지역도 불안하다'는 등의 미확인 가짜 메시지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추가 확인된 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감염 음압 격리실로 들어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문 대통령 "코로나 사태 장기화 대비 경제 충격 최소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언급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에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 … 확산 차단 '초비상'

태국 다녀온 42세 여성
접촉자 파악·관리 나서

지난 19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6번째 확진판정을 받고 전남대학교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이 아닌 태국 여행을 다녀온 탓에 귀국 후 유사 증상이 있었는데도, 격리되지 않고 광주 도심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광주시 등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 여성이 귀국할 때 탑승한 비행기에는 172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대규모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인 만큼 비상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대외활동은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사용하기,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광주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A(여·42)씨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어머니(69) 등 가족 5명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태국 방콕과 파타야 등을 둘러보고 같은 달 19일 무안 공항으로 귀국했다.

귀국편 비행기에는 승객 166명, 승무원 6명 등 총 172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를 제외하곤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인 A씨는 이틀 뒤인 27일 광주 광산구 광주21세기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신종코로나 선별 진료소로 지정된 곳은 아니었으며 A씨는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평소 폐 기저 질환이 있어 단순 폐 질환으로 판단, 내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같은 날 전남대병원으로 전원됐으나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만 받았다.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와 기존 질환인 폐렴약 등을 처방받았다.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음 날인 28일부터 다시 21세기병원에서 찾아 입원했으며, 증세가 악화하면서 지난 3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격리됐다. 오한 증상이 처음 나타난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될 때까지 10일간 방역망 밖에서 활동한 것이다.

현재 전남대병원 음압 병동에 격리된 A씨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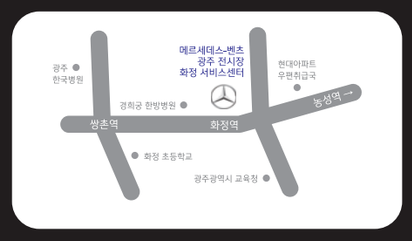
이날 현재 파악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16명의 접촉자는 1318명이다. 이날 확진된 16번 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에 대한 주요 동선과 접촉자 등이 빠르면 5~6일께 파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 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_2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